

기계처럼 쓰기

Writing Like Machine

원저자: Johanna Drucker

발췌 + 한국어 번역: Alm Chung

[... 전략]

2011년도 어느 날 매튜 허스트(Matthew Hurst)의 블로그 포스팅, “스티브 잡스의 하팍스 레고메논(Hapax Legomenon)”를 보게 되었습니다. 허스트는, 많은 시인 친구들이 으레 그리하듯, 언어적 모든 것의 규범적 질서에 대한 시적 개입으로서 이 글을 제안한 게 아닌, 데이터 마이닝의 한 사례로서 겸손히 글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자동 수집 코드와 피드를 통해 [스티브] 잡스의 죽음을 전하는 수많은 텍스트들을 모아 분석하는 프로세스를 만들고 자동화했습니다. [...] 허스트가 잡스의 생애를 전하는 글들을 압축해 만든 이 요약 글의 스타일은, ‘시적 언어로 생각하기’의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 많은 양의 자료를 취하여 또렷한 본질(apparent essence)의 진한 정제물(dense distillation)을 만드는 거죠. 저는 이 발화 속에서 또렷히 말해진(enunciated) 주제보다는, 그렇게 말하는 자리(space)를 점유하는게 어떤 느낌일지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저는 알고리즘처럼 — 논의되고 있는 대상의 실제 위치에서 벗어나 외부에 위치한 어떤 구차한 모방 행위로써—글을 쓰고 싶지는 않지만, 말을 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알고리즘으로서 글을 써보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은 보람있는 경험이었고, 그 목소리 속으로 빠져들어, 내 안에서 그 목소리를 발견하고, 어떤 생각과 발화 방식으로써 그 목소리를 써보고 나니, 이런 담화의 발화 주체(spoken subject)가 누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기계들일까요? 유사한 방식으로 생성된 다른 텍스트들일까요? 다른 코드 작성자들 혹은 인코딩 된 작가들일까요? 이 작업이나 이 작업이 이끌어내게 될 활동 속에는 숨겨진 메시지나 가짜 신원이 담겨있지(inhere) 않습니다.

[...]

이 포부가 거창한 활동에서 제가 배운 것은, 저라는 개인 정체성에서 벗어난 어떤 주체로서 말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글을 쓰는 것(writing)이 아니라 처리(processing)를 하고 있었고, 작문을 하는 것(composing)이 아니라 압축(compressing)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서 소유권과 권위를 어느 정도 포기하는 것은, 자신이 어떻게 연기(enact)하는지 듣고 느끼기 위해 작전을 수행한다는 컨셉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러한 알고리즘의 제재(strictures)에 기반한 선언적 장치(enunciative apparatus)의 형태를 만들어가며 스스로 알고리즘적 프로세스(algorithmic process)가 되는 과정이 즐거웠는데요, 인간성을 포기하거나 규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닌, 그 가능성의 증대와 확장으로서 그랬습니다.

알고리즘이 수정되고, 변경되고, 출현하고, 변형되어갈 때마다, 누가 말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앞으로도 여러모로 오랫동안 우리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또렷한 표현(articulation)이 말하는 주체 위치(subject position)와의 합의점을 찾는 작업은 우리가 속한 시스템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가는 데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통제 범위와 심지어 이해 범위를 초월하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만약 무엇으로서 말하는 것이 무엇처럼 말하는 것과 구별될수 있다면, 무엇을 통해/무엇과 함께 말하는 것에 대한 질문들도 — 우리가 그들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는만큼 우리에게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는 알고리즘 시스템의 잠재력을 다루는 방법으로—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괜찮고요. 앞으로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게 될지 지켜봅시다. 즐거운 활동이었으며, 제가 어렸을 적, 어떤 단계에는 루이스 캐럴(Lewis Carroll)처럼, 다른 단계에서는 에밀리 브론테(Emily Brontë)처럼 글을 쓰고 싶었고, 셸리아(Celia)와 루이 주코브스키(Louis Zukovsky)의 카툴루스(Catullus) 번역에서 공명하는 교훈들을 흡수하며 성장해온 그만큼, 이 문화적 순간에, 기계의 언어를 내 시적 활동을 패턴화 하고 싶은 모델로 여기고 있습니다 — 언어 체계 전범위를 점차적으로 통합해가고 있는, 우리가 말해지는 주체(spoken subject)이자 말하는 주체(speaking subject)인, 어떤 공간에서 살아가기 위해.